

李鈺 遊記의 美的 特性

黃 娥 英*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日常의 捕捉 |
| II. 全體性에 대한 拒否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본고는 文無子 李鈺(1761~1812)의 遊記를 중심으로 하여 그 특징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이옥 유기의 미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옥이 살았던 당시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으로 조선왕조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던 시기였으며 특히 문학적으로는 正祖가 추진한 문체반정으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이옥은 문체반정으로 문제시되었던 인물로서, 정조의 엄중한 문체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품체 산문을 고집하였고, 개성적인 필치의 소품체 유기를 창작하게 되었다.

이옥의 유기는 전체성에 대한 거부, 일상의 포착이라는 미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탈중심적이고 일상에 몰두하는 이옥 자신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전체성에 대한 거부는 3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첫째로는 기존의 유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탈중심적 소재를 다룬 점, 둘째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한 점, 마지막으로 일반적 시선과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고 분해하여 이옥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점이다.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 ah-younghwang@hanmail.net

당시의 중심적 가치관인 성리학과 古文에 대한 저항과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은 이전의 유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재의 유기를 창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옥은 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각각의 차이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가치관과 관점으로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여, 전체적 이미지를 이옥의 기준으로 분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함으로써 재구성하게 되었다.

이옥은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현재 보이는 것 또는 상황을 포착하고 기록하는데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옥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객관적 시각으로 보았으며, 상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포착하여 그것들을 하나하나 글로 옮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일상의 언어를 유기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대화체를 사용하여 장면에서 생동감과 사실성을 더하면서 장면을 극대화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이 이옥 유기의 미적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옥의 유기의 의의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옥의 유기는 일반적 유기처럼 산수의 풍광을 감상하기보다는 현재 이옥을 사로잡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에 몰두, 묘사하였다. 그렇기에 어느 곳을 가던지 이옥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무엇을 그리건 그것 자체가 놀이가 되었다. 이옥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나름의 위안을 삼았기 때문에 산수는 이옥에게 다른 의미의 안식처요, 구도처가 되었으며, 산수를 그리는 행위는 자기 위안이며 오락적인 놀이가 되었다. 이처럼 체재와 규범에서 벗어나 개성적이고 탈중심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유기를 지었다는 점에서 이옥은 조선 후기 문단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더 나아가 조선후기 사회에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곧 이옥 유기의 의의이자 가치이다.

【주제어】 이옥, 유기, 전체성의 거부, 탈중심, 다양성, 일상의 포착

I. 머리말

文無子 李鈺(1761~1812)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의 인물이다. 그 당시 조선왕조는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특히 문학적으로 正祖가 추진한 문체반정으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웠던 시기이다. 정조는 이옥이 소품이라는 새로운 문체를 사용하였다 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하였고, 이옥은 그로 인하여 평생을 발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소품체 문장 쓰기를 고집하였고, 그리하여 조선후기 산문의 변화와 동요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옥의 유기작품으로는 『重興遊記』, 『南程十篇』, 「三游紅寶洞記」, 「觀合德陂記」, 「登涵碧樓記」, 「觀瀑之行」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옥 유기 특징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南程十篇』과 『重興遊記』를 주로 논의하고, 다른 유기는 필요에 따라 논의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重興遊記』는 이옥이 34세 되던 해(1793년) 가을에 절친한 친구 金鑣와 그의 아우 金銑, 閔師膺과 동행하여,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산 중흥사 일대를 유람하고 남긴 기록으로 金鑣의 『薄庭叢書』에 실려 전하고 있다. 『重興遊記』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산의 여러 모습을 小品文¹⁾의 형식에 따라 독특하게 기술하였고, 유람의 일정과는 상관없이 소재별로 14개의 독립된 항목으로 나누어 글을 짓고

1) ‘소품문’이란 短小한 문장에 清新한 文體로 身邊雜事를 기록하면서 섬세한 자기 감정을 표현했던 조선후기 隨筆文學의 한 갈래이다. 한문학에서의 小品이란 주로 明末 公安派에 의해 주도된 明末清初의 短文小記를 가리킨다. 명말 공안파는 理念과 格式의 拘束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게 性靈을 發現시키는 것을 文學의 理想으로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小品은 종래의 載道之文과는 달리 文學의 독자적인 가치와 예술성을 중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김성진, 「조선후기 소품체 산문 연구」,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마지막에 ‘叢論’을 추가하여 끝을 맺었다.²⁾ 당시 문체로 인해 33세(1792년)부터 그의 이름이 실록에 거론되었었고, 임금으로부터 심한 견책을 받고 있던 시기에 지어진 작품임을 염두에 둘 때, 이 산수유기는 이옥의 소품 산문체에 대한 각별한 애착과 고집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옥의 유기 중 『南程十篇』은 『重興遊記』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작품이다. 이옥이 성균관에 들어간 지 반년만인 36세(1795년)에 다시 응제문에 쓴 ‘嚙殺奇詭’한 문체로 인해 정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경상도 삼가(지금의 합천) 지방으로 충군의 조치를 받고 충군하고 돌아오는 한 달여간의 일정 중에 겪은 견문을 바탕으로 지어진 글이다. 『南程十篇』은 삼가로 오고 가면서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유기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방의 풍속과 방언, 송광사에서 오백나한의 모습이라던가, 安陰지방을 지나며 느낀 물에 대한 생각, 또 縣監 朴侯의 집을 보고 느낀 점, 紫峙에 이르러 목화밭이 많은 것을 보고 쓴 글 등이 있다. 『重興遊記』가 유람 자체에 의의를 두었다면, 『南程十篇』은 새로운 환경과 사물에 대한 생각을 더욱 드러내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옥 ‘유기’의 미적 특성을 II. 全體性에 대한 拒否와 III. 日常의 捕捉 두 가지로 나누어 논지를 전개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옥은 유기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으며, 유기 창작은 이옥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이러한 구성방식은 일반적 遊記와는 다른 구성인데, 일반적인 遊記는 지명에 대한 내력 → 경물묘사와 서정 → 기사와 이론·이치 설과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김혜진, 「원평도의 유기문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II. 全體性에 대한 拒否

전체성[여러 사물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성질] 혹은 중심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한다. 이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한 시대의 사상이나 관점도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것이 주자성리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문인학자들도 道文合一을 외치며 주자학적 義理之學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이옥이 살았던 18~19세기에 오면서 조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학문과 사상의 유입과 함께 지배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대부 작가가 증가하면서 주자성리학에 바탕을 둔 사유체계에서 벗어나 인간성의 본래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개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철학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소품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고문의 격식을 무시·과피하고, 새로운 글쓰기 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李鈺은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조선후기의 한 흐름을 따라 性理學과 古文이라는 전체성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전체보다는 부분, 중심적인 것보다는 주변적인 것, 主流가 아닌 非主流을 추구하였다. 당시의 고문 일색이던 문풍에서 나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품문이라는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노선을 그려나갔다.

이옥은 유생 시절 停擧조치와 充軍의 명을 받는 등, 문체로 인하여 여러 번 正祖로부터 문체의 인물로 지목되었다. 당시 小品에 빠져들었던 일부 인사들은 王命에 의해 곧장 古文으로 돌아왔으나 이옥은 자신의 문체를 소신 있게 지켜나갔다. 그러한 이유는 이옥 자신이 문체를 고친다고 해도 신분적인 한계를 넘을 수 없음을 이미 알아, 굳이 자신의 문체를 고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 고문의 전통적 격식에 대한 이옥의 강한 반항 혹은 저항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옥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옥은 당시 실학과 문인들처럼 정치나 사회개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다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개성과 생각을 새로운 문체로 표현하는 데에만 열중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집안은 무반 출신의 庶族이었고,³⁾ 이옥 자신도 치세나 민생에 관한 가치관, 혹은 입신양명에 대한 큰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옥은 성균관 유생시절부터 科體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선비라는 신분으로 과거에 응시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조의 여느 사족처럼 官界로 진출하기 위해 과거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비록 경전에 몰입하기를 술과 같이 하고, 일반 서책에 탐닉하기를 여색과 같이 했으며 (中略) 과장의 문자와 같은 것은 비록 대방가가 달갑게 여기는 바 아니지만, 秀才·學究[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는 반드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또 이는 선비가 자신을 출세시키는 階梯이니, 반평생 마음을 쓰듯 兎蹄魚筌 [토끼를 잡는 올가미와 물고기 잡는 통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다.⁴⁾

이옥의 나이 25세(1784년)에 제야를 맞이하여 「祭文神問」을 지었는데, 출사에 대한 남다른 집념과 외골수적 성격, 자신의 시문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입신을 위해 과거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선비의 처지로서, 주색을 탐하듯 과거 공부에 정진했다. 이옥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했고, 지나치게 격식에 치우친 科文에 대한 괴리와, 寒微한 출신으로서의 소외의식을 이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현실과 자아의 괴리감을 느끼고, 외부로부터도 자신의 개성을 드

3) 이는 김영진의 「이옥 연구1-가계와 교유, 명·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1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에 의해 밝혀졌다.

4) 李鈺, 『石湖別稿』, 「祭文神文」 “雖其癖經如酒, 淫書如色, (中略) 若其科場文字, 雖是大方家所不屑, 而秀才學究, 必以是歸重. 又是青衿進身之梯, 則半生費心兎蹄魚筌.”

러내는 문체에 대해 강한 비판과 압력을 받으면서 이옥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모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옥의 상태는 ‘주변인’으로 볼 수 있다. ‘주변인’은 행동양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원래의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금방 버릴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옥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모든 상황과 현재를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분석 파악하였다. 어느 한 편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였고, 종속관계 혹은 우열관계를 떠나 평등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옥의 관점은 구성방식이나 서술방식은 물론, 작품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옥만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문체를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옥의 전체성에 대한 거부는 그의 ‘유기’작품에 3가지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는 기존의 유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탈중심적 소재를 다룬 점, 둘째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한 점, 마지막으로 일반적 시선과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고 분해하여 이옥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한 점이다.

1. 脫中心的 素材

이옥은 당시의 문체를 순정한 상태로 복귀시키자는 정조의 주장에 자신의 문체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은 인물이다. 문체반정을 통해 정조가 요구한 순정 고문이란 것은 唐宋八大家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아, 유가적 이상을 표현하는 격조 있는 문체였다. 정조가 고문을 강조하게 된 이유를 걸음으로는 邪學[天主教]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소품문이 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⁵⁾ 기실 南人들이 대거 연루된 천주교 사건이 불거질 때 공격의 예봉을 천주교에서 문체론으로 옮겨 남

5) 강명관, 「문체와 국가장치-정조의 문체반정을 둘러싼 사건들」,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제』, 태학사, 2003, pp.49~73.

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문을 지킨다는 것에는 중세적 질서의 근간인 성리학적 사유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 고문이 무너지면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지고, 중세적 질서가 무너지고,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 문체의 문체는 바로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당시 古文에 대한 인식이 이러할 때 이옥의 고문 거부는 곧 당시의 중심적인 가치관[성리학적 질서]에 대한 거부였다. 이옥은 『南程十篇』 「屋辨」에 고문과 자신의 문체를 집으로 비유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安陰에 새로 지은 작은 집 하나가 있는데, 縣監 朴侯가 지은 것이다. 기둥이 도합 열두 개인데, 동서쪽으로 세 개, 남북쪽으로 네 개다. 동쪽에 榮을 만들었는데, 벽도 없고 가로대는 나무도 없다. 서쪽에 온돌방을 만들었는데, 벽도 있고 지게문도 있고, 바라지도 있고 창도 있다. (中略) 처마 쪽에서 보면 모나면서도 약간 둥글 길쭉하고, 꼭대기에서 보면 뽕죽하면서도 둥글다. 그 이은 것은 粥藟의 임시 막사와 비슷하다. 구부러지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았으니, 꼭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들어 여기서 시를 읊조릴 만하고, 여기서 술을 마실 만하고, 여기서 담소하며 떠들 만하고, 여기서 너을너을 춤출 만하다.

박후가 말하였다.

“내가 집을 지으니,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말하길, ‘중국식으로 지으면 비방이 클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 일찍이 살펴보건대, 집을 짓는 자들은 대부분 나무를 밀랍처럼 광택이 나게 하고, 돌을 엇가락처럼 다룬다. 둥근 도리는 활처럼 휘고 키처럼 곧으며, 다섯 또는 일곱 개의 들보로 하고, 네 모서리가 급히 말아 올라간 처마는 학이 날고 난새가 춤추는 듯하다. (中略) 이에 등마루를 쳐다보니 악어가 큰 물에서 햇볕을 쬐이며 물방울을 떨어뜨린 채 서로 돌아보는 것 같고, 三太星이 휘황하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것을 저것에 비교함에 어느 것이 진술하고, 어느 것이 공교로운가? 어느 것이 검소하고, 어느 것이 야단스러운가?⁶⁾

6) 李鈺, 『南程十篇』, 「屋辨」 “安陰有新小屋一, 監朴侯之所營. 柱凡十有二, 東西三, 南北四. 東爲榮, 不壁不核. 西爲突奧, 有壁有戶, 有牖有窓. (中略) 由簷而觀, 角而微墮. 由頂而觀, 尖而圓. 其葺瓦, 若粥藟之芰. 不穹不脩, 不雕不華,

이옥은 복잡하고 화려하기만한 문장 보다는 어느 나라 식이건 상관없이 편안히 즐길만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무겁고 진지한 내용의 성리학적 고대담론을 거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소소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글로 표현하였다. 대상을 거시적인 성리학적 시각과 고문의 격조 있는 문체로 표현할 때는 보이지 않던 문제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소품문체로 표현하며 바라볼 때 새로운 각도에서 보이는 것이다. 성리학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그 발견된 것에 곧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南程十篇』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南程十篇』에 사용된 소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南程十篇』의 「路間」에서는 장돌뱅이 노인과의 문답, 「寺觀」에서는 오백나한과 종이 만드는 법, 「烟經」에서는 담배와 향 연기, 「方言」에서는 영남의 방언, 「水喻」에서는 물과 돌, 「屋辨」에서는 박후가 새로 지은 집, 「石嘆」에서는 돌, 「嶺惑」에서는 추풍령, 「古蹟」에서는 지방의 유적지, 「綿功」에서는 목화를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이옥이 『南程十篇』에서 취한 소재는 기존의 遊記 장르에서 취한 소재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전 유기의 내용이 유람을 하면서 즐기는 풍류, 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역사 문화 유산에 대한 기록, 산사에 머물면서 산승들과 주고받은 대화, 힘들여 산을 올라가는 과정, 산을 오르내리면서 깨닫게 되는 道, 함께 간 사람들과의 일화, 그들이 주고받은 시, 산에 올라 느끼는 감회, 자연경관에 대한 묘사 등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옥은 일상과 관련한 것들을 유기의 소재로 사용하면서, 이옥의 유기에서는 본래 유기문이 지니고 있던 산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사라지게 되었다.

不騫不沈, 不曲而衷, 可以哦於斯, 酌於斯, 叱於斯. 婆娑於斯. 侯曰, 我作室家, 人聞之者曰, 華之制, 其嘖大. 噫! 嘗觀造屋者, 多澤木如蠟, 煉石如錫, 輪櫟弓柁, 五七其椽, 四角急卷, 鶴矯鸞跹. (中略) 乃瞻其脊, 鱷魚曝洋滴水, 相顧三星煌煌. 以此較彼, 孰真孰巧, 孰儉孰張?”

종자가 말했다.

“땅에 씨앗을 묻으면, 씨앗에서 싹이 트고, 싹에서 모가 되고, 모에서 더 자라나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줄기가 생기며, 줄기에서 가지가 생기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생깁니다. 잎사귀가 자란 후에 씨방이 생기고 씨방이 생긴 후에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봉오리가 생긴 후에 꽃봉오리가 터지고, 터진 후에 꽃이 피입니다. 무릇 아홉 번 변하여 꽃이 피입니다.”

“면포가 이미 이루어지면 어떻게 옷이 만들어지느냐?”

“면포가 이미 만들어지면 이것을 ‘無名’이라 합니다. 잿물에 삶아서 풀을 뽑아 가볍게 하고, 햇볕에 널어 말려 뽀얗게 하고, 염색하여 화사하게 하고, 풀을 먹여 곱게 하고, 돌에 다듬어질하여 산뜻하게 하고, 폭과 길이를 재어 고르게 하고, 마름질하여 한도를 정하고, 시침 바늘을 꿸고, 실로 갈무리하고, 인두질하여 가지런히 정리하고, 물을 뿜어 촉촉하게 하고, 다림질하여 울을 곧게 합니다. 또한 열두 번의 공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집니다.”⁷⁾

「綿功」에서는 작자가 從者와의 대화를 통해 목화가 면포가 되는 과정, 목화가 꽃이 피는 과정, 면포가 옷이 되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면포가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짐에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천하게 대우받는 다는 것을 말하면서 목화를 소재로 사용하였다. 遊記에서 목화가 옷이 되는 과정을 다룬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遊記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이며,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서술되는 경우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이옥의 다른 유기작품인 『重興遊記』는 북한산 기행록으로 ‘절목화’ 시킨 구성상의 다른 점은 있으나 이전 유기 소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북한산을 유람하며 즐기는 풍류, 산 곳곳의 누정과 사찰, 성곽에 대한 기록, 자연 경관의 묘사, 함께 간 사람들과의 일화, 산

7) 李鈺, 『南程十篇』, 「綿功」 “從者曰, 藏核于土, 自核而芽, 自芽而苗, 自苗而茁, 下根上幹 自幹而枝, 自枝而葉, 葉而後房, 房而後蓓, 蓓而後坼, 坼而後花. 凡九變而花. 布既成矣 衣之如何? 曰, 布既成矣, 是曰無名. 灰而輕之, 陽而明之, 采而榮之, 穀而精之, 石而唱之, 度而亭之, 剪而程之, 箴而兵之, 絲而并之, 烙而平之, 瀝而清之, 火而貞之, 亦十有二運而成.”

을 오고가며 만난 승려들 이야기 등이다. 그렇다면 왜 『南程十篇』과 『重興遊記』의 소재는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유는 유람의 동기와 장소의 차이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차이이지만, 이 차이를 통해 이옥 유기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 『重興遊記』는 성시에서의 울울한 나날을 떨치기 위해, 즉 진정한 유람의 목적을 가지고 유람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南程十篇』은 삼가현으로 충군 가는 길에 겪은 견문을 바탕으로 지어졌다. 이미 정조로부터 당대 중심적 가치관에 저항하는 인물로 지적을 받은 이옥으로서는 더 거리낄 것 없이 자신의 개성적인 문체로 글을 지었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奇異한 소재·흥미로운 사건이 가득한 유람이 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 후기 燕行錄이나 使行錄 등에 그들이 견문한 것을 기록하여 길가의 자연경관으로부터 그들이 새롭게 접하는 나라의 문명,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행하면서 일행들과 겪는 일화들이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⁸⁾

2. 多樣性 認定

이옥은 당시 자신이 추구하고 끝까지 견지하였던 소품 문체가 정조와 혹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글이 고문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했다. 삼가 지방을 다니며 자신의 문체와 古文을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문장을 제대로 평가해 주길 바라는 마음과, 不遇함의 부당함을 은근하게 밝히고 있는 글이 『南程十篇』에 여러 편 보이는데, 여기서 가치의 판단은 뒤로 미뤄두고 다양성을 인정·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중심과 주변,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8) 이해순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이러한 유기들은 조선 후기에 지리적 관심의 확대와 함께 지명시, 기행가사, 연행록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생산되면서 조선 후기 문학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을 구분하고 가치를 평등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며, 그것대로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이옥은 모든 상황과 현재를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 파악할 수 있었다.

(前略) 그렇지 않다. 한성은 나라의 중앙으로, 한성의 중앙에 주민들이 있는데, 그 부르고 대답하고 울부짖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만가지 물건들을 이름 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과 달라서, 그들을 별도로 賴民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어찌 지역성 때문이겠는가? 풍속 때문이다. 호서인으로 수행하던 사람이 여관에 들어 주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을 일컬어 山代, 가을을 일컬어 歌瑟, 마을을 일컬어 瑪瑟이라고 하니, 영남인인 주인이 그것을 크게 웃었다. 영남인인 주인은 호서인의 말을 두고 웃었지만, 호서인 또한 영남인의 말을 듣고 웃는 것을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 호서인이 영남인의 말을 두고 웃는 것이 옳은가? 영남인이 호서인의 말을 두고 웃는 것이 옳은가? 또 어찌 알겠는가? 호서인과 영남인이 우리의 말을 두고 웃지 않을지.9)

『南程十篇』의 「方言」은 각 지방의 말이 다른 것을 기술하였는데, 호서 사람이 지금을 ‘山代’라 하고, 가을을 ‘歌瑟’이라 하고, 마을을 ‘瑪瑟’이라 하자 영남 사람이 이를 두고 크게 웃는 일이 있었다. 이옥은 영남 사람이 호서 사람의 말을 두고 웃었지만, 호서 사람 또한 영남 사람의 말을 두고 웃는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호서 사람과 영남 사람이 우리[서울]의 말을 두고 또한 웃을지 모른다 하였다. 지방 사람에게는 중심 언어인 王都의 말조차 이색적인 말이라는 것이다. 삼가에 있을 때 그

9) 李鈺, 『南程十篇』, 「方言」 “(前略) 不然. 漢城國之中也, 城之中有民焉, 其嚀喚應唯嗥哭誦對, 字萬物, 多與凡之民異, 別之曰賴民, 是豈土也哉? 風也. 湖之人有從行者, 入逆旅與主人言, 謂今日山代, 謂秋曰歌瑟, 謂村曰瑪瑟, 嶺之主人大笑之. 嶺之主人, 笑湖之人之言, 而不知湖之人亦笑嶺之人之言. 吾不知, 湖之人之笑嶺之人之言, 是耶? 嶺之人之笑湖之人之言, 是耶? 又安知湖之人嶺之人, 不笑吾之人之言耶?”

지방의 색다른 풍속을 기술하되, 서울을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은 채 지방의 특색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였다. 이옥은 방언을 듣고 어느 지방의 방언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저것이 틀린 것이 되고, 저것이 기준이 되면 이것이 틀린 것이 되는 것이니, 그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가치를 논하기에는 옳지 않다. 이옥은 다만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 관점에서 각 지역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옥은 또한 어떠한 틀 속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다른 어떠한 변화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에 대하여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은 관점이다.

일찍이 듣건대, 조령은 천하의 험준한 곳이어서 길가는 사람이 사람의 어깨를 타고 가고, 죽령은 말에서 안장을 풀어야 하고, 팔랑치는 평평하면서도 지대가 높아 고개 밑 부분부터 정상까지 십오 리나 되고, 육십령은 옛날에 육십 명의 사람이 없으면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이것으로 령이 모두 험준하고 가파름을 알겠나.

갑신일에 金泉에 머물다가 을유일 새벽길을 떠날 적에 마부에게 경계하여 말했다.

“네 말을 배부르게 먹여라. 네 말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말의 뺏대끈에 오늘 땀이 찰 것이다.”

또 從者를 경계하여 말했다.

“해가 한낮이 될 무렵이면 추풍령에 오를 것이다. 너는 신발을 묶고 멀리 따라오지 말도록 하라.”

황간읍에 이르러서 돌아보며 말했다.

“嶺이 왜 그리 지루한가?”

여관주인에게 물어보니, 이미 嶺 북쪽 삼십리에 왔다는 것이다.

아! ‘재상들은 모두 도가 있어 어질다’고 하고, ‘장군들은 모두 용기와 지혜가 있어 그 凶門을 제압한다’고 하고, ‘선비들은 모두 의리에 충실하다’고 하고, ‘도는 모두 높고도 넓다’고 하고, ‘덕은 모두 반듯하며 크고 곧다’고 하고, ‘학문

은 모두 진실되고 博約하다'라고 하고, '문장은 모두 빛이 휘황하고 소리가 쟁쟁하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인가? 實이 있는 후에 이름이 있지만, 또한 실이 없는데도 이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¹⁰⁾

삼가 여행 중 추풍령을 지나면서 겪은 일이다. 이옥은 조령, 죽령, 팔량치, 육십령에 대해 듣기를, 사람이 사람의 어깨를 타고 가고, 말에서 안장을 풀어야 하며, 지대가 높아 고개 밑 부분부터 정상까지 십오 리나 되고, 육십 명의 사람이 없으면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런 까닭에 嶺이 모두 험준하고 가파를 것이라 생각하고 마부와 종자를 시켜 단단히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嶺이 가파르기는커녕 지루하기까지 하다. 여관주인에게 묻고 나서야 嶺인 줄 알 정도로 완만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제까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嶺에 대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道·德·학문·문장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까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자신의 글은 實이 있지만 이름이 없고, 고문은 實이 없다. 그러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모두가 사실인 것은 아니며 고정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옥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 자신의 문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되는 셈이다.

3. 分解와 再構成

앞에서 이옥은 일상적 소재를 유기의 소재로 사용하였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일상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

10) 李鈺, 『南程十篇』, 「嶺惑」 “嘗聞之, 鳥嶺天險, 行者騎人肩, 竹嶺馬解鞍, 八良嶺夷而高, 自趾于頂, 十五里, 六十人之嶺, 古者無六十人, 不敢入, 故名. 是以知嶺皆險阻陡峻也. 甲申次于金泉, 乙酉行晨, 戒御曰, 飽爾馬, 慎爾馬, 鞵今日汗. 戒從者曰, 日欲中, 可陟秋風, 結爾履, 毋遠從. 至于黃潤之治, 顧曰, 嶺何遲? 問諸逆旅人, 已嶺北三十里. 噫! 曰相皆有道寅亮, 曰將軍皆勇智制凶門, 曰士皆服義理, 曰道皆巍且浩. 曰德皆方大直, 曰學皆眞實博約, 曰章皆煌煌鏘鏘耶? 有實而後名, 亦有無實而名者.”

들을 새롭게 인식하였는데, 이것은 전체적 이미지를 이옥의 기준으로 분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함으로써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옥이 전체의 이미지를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유기에서 살펴보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이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대상에 주목하여 그 대상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하나의 이미지를 세밀하게 관찰한 뒤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에 따라 분해하였다. 두 번째로는 유람의 기억을 분해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주의 동쪽, 종남산 아래에 송광사가 있다.

(中略)

나한전을 보니 나한은 오백으로 헤아리는데, 눈은 물고기 같은 것·속눈썹이 드리워진 것·봉새처럼 둘러보는 것·자는 것·불거진 것·눈동자가 튀어나온 것·부릅뜬 것·홀겨보는 것·결눈질하며 웃는 것·닭처럼 성내며 보는 것·세모난 것이 있고, 눈썹은 칼을 세운 듯 깨끗한 것·나방의 더듬이 같은 것·굽은 것·긴 것·몽당비 같은 것이 있고, 코는 사자처럼 쳐들린 것·양처럼 생긴 것·매부리처럼 굽은 것·주부코인 것·밋밋한 것·빈대코인 것·대롱을 잘라 놓은 듯한 것이 있고, 입은 입술이 말려 올라간 것·앵두 끝처럼 생긴 것·말 주둥이 같은 것·까마귀 부리 같은 것·호랑이 입 같은 것·비뚤어진 것·물고기 처럼 빼꼼대는 것이 있고, 얼굴은 누런 것·약간 파란 것·붉은 것·분처럼 흰 것·복사꽃 같은 것·어루러기가 돋은 것·혹이 난 것이 있으며, 물고기 눈에 사자의 코를 한 것, 양 코에 눈썹이 드리운 것, 사자 코에 부릅뜬 눈에 호랑이 입을 한 것이 있다.¹¹⁾

11) 李鈺, 『南程十篇』, 「寺觀」 “全州之東, 終南山之下, 爰有松廣之寺. …… 觀羅漢, 羅漢五百數. 有目魚者·簾睫者·鳳眸者·睡者·睥者·突睛者·曠者·睨者·盼而笑者·鷄嗔視者·三角者. 眉劍者·蛾者·彎者·長者·如禿帚者. 鼻獅昂者·羊者·鷹嘴勾者·鼯者·平者·曷者·截筒者. 口卷唇者·櫻耑者·馬喙者·烏喙者·虎吻者·喙者·魚吻水者. 面黃者·微青者·朱者·粉白者·如桃花者·醜者·栗色者·黠者·痣者·麻者·白癩者·瘤者. 魚目而獅鼻者, 羊鼻而睫簾者, 獅鼻而曠而虎吻者.”

「寺觀」은 송광사를 지나면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먼저 절의 위치를 차례대로 묘사하고, 외문, 제이문, 제삼문을 거쳐 절 안의 마당으로 들어온다. 대웅전, 나한전, 시왕전을 묘사하였는데, 매우 구체적이며 감각적이다. 그 다음으로 종이 만드는 곳으로 건너가 종이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일반적인 유기에서도 절의 위치나 구조, 내부 모습 등을 말하는 것은 비슷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옥은 다른 것을 보았다. 다른 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나한전의 오백나한을 전체 이미지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하나 열거하며 묘사하였다. 이옥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관심 갖은 것에는 한번 시선을 던지면 집요하리만치 꼼꼼하게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오백 나한을 나한 한명 한명으로 나누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눈썹·코·입·얼굴 순으로 신체 부분별로 나누어 묘사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시 특징을 2개, 3개씩 모아 재구성하여 묘사한 것이다. 또한 나한의 모습을 묘사함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하였는데, 낯선 한자를 사용하여 묘미를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으로 분해되어 묘사된 오백 나한은 각각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을 만큼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전체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그 작은 단위대로 하나하나 묘사하고 나니, 원래의 전체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먼저 오백 나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았다면, 오백 나한의 모습은 웅장하고, 위엄이 있어야 할 텐데, 이옥의 방식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해보면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모습만이 남는다.

또한 경관을 관찰한 뒤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에 따라 분해한 것도 있다.

① 산에 오르기 전에는 모두들 단풍은 너무 이르다고 말하였는데 산에 들어와 보니 단풍과 絡石과 나무로서 의당 붉어질 것은 이미 다 붉어져 있었다. 石

12) 정민,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경향」,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태학사, 2003, p.151.에서 이에 대해 이미 언급하고 있다.

榴花의 붉음, 연지의 붉음, 粉의 붉음, 猩血의 붉음, 질게 붉기도 하고 열게 붉기도 한 것이 이르는 곳마다 빛깔이 같지 않았다. 그것은 위치가 구별되고 나무가 다르기 때문이다.¹³⁾

② 바람은 잔잔하고 이슬은 淨潔하니 팔월은 아름다운 계절이고, 물은 흘러 움직이고 산은 고요하니 북한산은 아름다운 境地이며, 豈弟洵美한 몇몇 친구는 모두 아름다운 선비이다. 이런 아름다운 선비들로서 이런 아름다운 경계에 노니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紫峒을 지나니 경치가 아름답고, 洗劍亭에 오르니 아름답고, 僧伽寺의 門樓에 오르니 아름답고, 文殊寺의 문에 오르니 아름답고, 大成門에 입하니 아름답고, 重興寺 峒口에 들어가니 아름답고, 龍岩峰에 오르니 아름답고, 白雲臺 아래 기슭에 입하니 아름답고, 祥雲寺 동구가 아름답고, 폭포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大西門 또한 아름답고, 西水口가 아름답고, 七游岩이 매우 아름답고, 白雲峒門과 靑霞峒門이 아름답고, 山暎樓가 대단히 아름답고, 孫家莊이 아름다웠다.

貞陵峒口가 아름답고, 東城 바깥 모래밭에서 여러 마리 내달리는 말을 보니 아름답고, 삼 일 만에 다시 도성에 들어와 翠帘·坊肆·紅塵·車馬를 보게 되니 더욱 아름다웠다. 아침도 아름답고 저녁도 아름답고, 날씨가 맑은 것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다웠다. 멀리서 조망해도 아름답고 가까이 가서 보아도 아름답고, 불상도 아름답고 승려도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인주가 없어도 탁주가 또한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도 樵歌가 또한 아름다웠다. 요컨대 그윽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고 밝아서 아름다운 곳도 있었다. 탁 트여서 아름다운 곳이 있고 높아서 아름다운 곳이 있고, 담담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고 번다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 고요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고, 적막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 어디를 가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누구와 함께 하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이와 같이 많을 수 있단 말인가?

李子는 말한다.

아름답기 때문에 왔다. 아름답지 않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¹⁴⁾

13) 李鈺, 『重興遊記』, 「草木」 “未入山, 皆言楓太早, 及入, 楓及絡石及木之宜紅者, 已盡紅矣. 石榴花紅, 胭脂紅, 粉紅, 荷花紅, 猩血紅, 老紅, 退紅, 隨處而色不同, 地之區而木之殊也.”

14) 李鈺, 『重興遊記』, 「總論」 “風枯露潔, 八月佳節也. 水動山靜, 北漢佳境也, 豈弟洵美二三者, 皆佳士也. 以茲游於茲, 如之何游之不佳也? 過紫峒佳, 登洗劍

① 『重興遊記』의 「草木」 절목이다. 산에 올라 보니 붉어질 것은 이미 다 붉어져 있다. 그런데 붉게 물든 단풍도 이옥에게는 다 같은 붉은색이 아니다. 하나의 붉은 색도 이옥의 눈을 통하면 석류화의 붉음, 연지의 붉음, 분의 붉음, 성혈의 붉음 등 가지각색의 붉은 색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작은 차이를 발견하여 여러 가지의 이미지로 분해하였다.

② 『重興遊記』의 「總論」은 북한산의 풍광에 대해 ‘아름답다[佳]’로 품평한 글인데, 이 글자가 무려 52회나 반복 표현되어 있다. 북한산 유람을 되돌아보면, 어느 한 군데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할 만큼 이옥의 기억에는 ‘아름다운 북한산 유람’으로 각인된 것이다. 이옥은 ‘아름다운 북한산 유람’이라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장소별, 주제별로 나누어 다시 아름다웠다고 표현하였다. 주제어인 ‘佳’字가 반복된 수만큼 이옥이 느낀 감동의 정도가 독자에게도 전해진다.

전체를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전체 유람의 기억을 분해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옥 유기의 『重興遊記』의 절목에서도 나타난다. 『重興遊記』는 3박 4일 간의 유람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람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다. 일정과는 상관 없이 소재별로 14개의 독립된 항목으로 나누어 글을 짓고 마지막에 「總論」을 추가하여 끝맺고 있다. 이옥은 유람의 기록을 「總論」을 포함한 15개의 항목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유람의 기억을 분해하고 재구성하였다. 「時日」, 「伴旅」, 「行李」, 「約束」, 「官廡」 등은 그렇다 하더라도 「譙堞」, 「亭

亭佳, 登僧伽門樓佳, 上文殊門佳, 臨大成門佳, 入重興峒口佳, 登龍岩峰佳, 臨白雲下麓佳, 祥雲峒口佳, 簾瀑絕佳, 大西門亦佳, 西水口佳, 七游岩極佳, 白雲青霞二峒門佳, 山暎樓絕佳, 孫家莊佳, 貞陵洞口佳, 東城外平沙, 見群馳馬者佳, 三日復入城, 見翠帘·坊肆·紅塵·車馬更佳, 朝亦佳, 暮亦佳, 晴亦佳, 陰亦佳, 山亦佳, 水亦佳, 楓亦佳, 石亦佳, 遠眺亦佳, 近逼亦佳, 佛亦佳, 僧亦佳, 雖無佳設, 濁酒亦佳, 雖無佳人, 樵歌亦佳. 要之, 有幽而佳者, 有爽而佳者. 有豁而佳者, 有危而佳者, 有淡而佳者, 有纏而佳者. 有窳而佳者, 有寂而佳者. 無往不佳, 無與不佳, 佳若是其多乎哉? 李子曰, 佳故來, 無是佳, 無是來.”

榭」, 「寮刹」, 「佛像」, 「緇髻」, 「泉石」, 「草木」, 「眠食」, 「盃觴」, 「總論」은 여정의 기억을 분해하고 재구성하여 기록한 것이다.

① 泉石은 蕩春臺는 번잡하고 祥雲寺 簾瀑은 시원스럽고, 西水口는 엄숙하고, 七游岩은 명랑하고, 山暎樓는 풍요롭고, 孫家莊은 밝으며 환했다. 모두가 아름다운 풍광으로서 우열을 쉽게 결정지을 수 없었다.¹⁵⁾

② 맹교에서 두 번 마셨는데 전후로 모두 네 잔[觴]이었다. 行宮 앞 주막에서 한 잔[碗]을 마시고, 訓倉廬 주막에서 한 잔[碗]을 마셨다. 아침에 안개가 너무 꺼서 승려를 보내 술을 받아오게 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다. 孫家莊에서 한 잔[觴]을 마시고, 藥師殿에서 한 잔[碗]을 마시고, 惠化門에서 청포차림에 나귀를 타고 오는 이를 맞아 함께 마셨는데, 마신 것이 한 鐘이었다. 성균관에서 두 잔[觴]을 마시고, 桂子巷에서 한 잔[杯]을 마셨다. 鐘이라 한 것은 맑은 술이고, 碗이라 한 것은 흰 술이고, 觴은 전국 술을 말한다. 다른 말로 杯라고 한 것은 紅露를 말한다. 산에 갈 때는 술이 진실로 없을 수 없으나, 또한 진실로 많아져도 안 된다.¹⁶⁾

① 부분은 북한산의 泉石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여정 가운데 기록하였다면 가는 길이나, 풍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을 법도한데, 장소에 대한 분위기roman 간단히 묘사하였다. 다른 주제의 절목-예를 들면, ‘緇髻’이나 ‘불상’ 절목-에 비해 분량도 매우 짧고, 자세한 기록이 없다. 이는 이옥의 흥미에 따른 차이일 것이다. 유람의 기억을 분해하고 재구성하여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부분은 술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한 장소에서 술을 마신

15) 李鈺, 『重興遊記』, 「泉石」 “泉石, 蕩春臺攘, 祥雲簾瀑瑤, 西水口號, 七游岩煥, 山暎樓月荒, 孫家莊昶, 皆佳賞, 優劣未易標榜也.”

16) 李鈺, 『重興遊記』, 「盃觴」 “再飲孟嶠, 前後共四觴. 行宮前墟, 一碗有半, 太古寺半碗, 祥雲一碗, 訓倉墟一碗. 朝大霧, 送僧沽酒來, 不果. 孫家莊一碗, 藥師殿一碗, 惠化門選青袍而跨驢者, 邀與飲, 飲一鍾, 泮飲二觴, 桂子巷飲一杯. 鍾者清也, 碗者白也, 觴者醇也, 變而曰杯者, 紅露也. 山行, 酒固不可無, 亦固不可多.”

일화를 그린 것이 아니다. 유람을 다니면서 어디에서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기록하였는데, 유람의 기억에서 술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추출해내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중심[전체]적 이미지를 분해하여 재구성하면 곧, 기존의 이미지는 해체되고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된다. 나아가 죽어있던 사물에 생기와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다시 모여 전체 이미지를 이루었을 때 전체 또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한다. 곧 중심적인 가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주변적인 가치도 인정해줌으로써 전체가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체성에 대한 이옥의 거부 방법이다.

이 장에서는 전체성에 대한 이옥의 거부가 작품에서 3가지 형태로 드러난 것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이옥은 중심, 전체를 거부하고 주변적인 것, 부분적인 것에 흥미를 느껴 유기에 탈중심적 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신의 문체 또한 중심이 될 수 없고,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자신의 문체에 대한 고집을 은근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각각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였다. 세 번째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 흥미로운 것은 확대하고 그 외의 것은 축소시켰으며, 전체를 분해한 뒤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이옥은 이러한 방법을 자신의 불우함과 문체적 제재에 대한 위안으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Ⅲ. 日常의 捕捉

일상이란 바로 구체적 삶의 현장이다. 이옥은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현재 보이는 것, 또는 상황을 포착하고 기록하는데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주변인으로서의 이옥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사건들

을 객관적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은 개입시키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현재와 사건, 상황만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포착하여 그것들을 하나하나 글로 옮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생활 주변의 일상적인 소재들을 즐겨 다루었으며, 글의 내용 또한 사소한 것들의 의미를 발견해 내는 일상적 담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옥은 일상과 현재에 침잠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잊고, 자신을 위로하는 작품을 많이 지었다. 김균태는 “생활에 즉한 생활 수필적 글을 통해 삶의 철학을 모색함으로써 한문학의 생활문학화를 열어놓았다.”, “관념적 도학에서 벗어나 경험적 세계를 바탕으로 한 사실적이고 卽生活的이라는데 문학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¹⁷⁾고 하였다.

1. 日常의 觀察과 記錄

이옥 소품의 독특한 특징의 하나는 묘사의 세부화에 의한 정밀화의 추구이다. 소품체를 纖微, 瑣碎, 尖斜하다고 비판한 것은 정밀성과 세부적인 면에 공을 들인 것을 이른 말일 터이다. 세밀한 묘사는 이옥 소품 가운데 패사류와 잡기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파리, 벼룩, 포도, 오이와 같은 미시적인 것을 현미경 비추듯이 여러 면을 클로즈업하여 묘사한 글에서 이러한 필치를 살필 수 있다.

한 번 휘두르면 술에 취한 듯하고, 두 번 휘두르면 병든 듯하고, 세 번 휘두르면 비로소 고요해진다.

한 번 치면 술에 취한 듯 날개로 앵앵 소리를 지르고 등짝으로 파득 파득 빙빙 돌다가 세 번 숨 쉴 동안 다시 휘두르지 않으면 황황히 일어나 망망히 떠나는데 문턱을 넘어서 감히 서질 못할 듯한다. 두 번째 치면 마치 병든 듯 몸통은 완연히 온전하고 다리는 면면히 움직일 듯하지만, 죽으려는 듯하다가 거의 반시각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생한다. 소생하면 비실비실 벌벌 떠는 것이 물에 빠

17) 김균태, 「이옥의 문학이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졌다가 덜 마른 것 같고, 몸이 얼어 막 잠들려는 듯한다. 세 번째 치면 비로소 고요해지는데, 이 또한 목이 떨어져 나가거나 몸통이 터지지 않아 사람이 보면 곧 날아갈 듯 여기나 잡아다가 본 연후에야 그것이 죽어 있음을 알게 된다.¹⁸⁾

「蠅拂刻」은 ‘파리채에 새긴 글’이란 제목의 글이다. 이옥이 소꼬리를 하나 얻어 그것으로 파리채를 만들었다. 파리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휘두를 때 파리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그 대상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다. 이렇게 일상의 아주 사소한 사건도 클로즈업하여 꼼꼼하게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해 놓으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사건이 아닌, 새롭고 재미있는 사건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옥의 유기에서 일상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승려의 옷은 베로 만든 두루마기이거나 푸른 면포로 만든 두루마기 이거나 또는 검은 베로 만든 직철 두루마기였는데, 소매는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였다. 승려들의 갓은 대나무를 엮어 만든 것으로 단통모·포량침건·폐양립 등이 있고, 대나무 껍질을 짜서 만든 것으로 대립이 있는데 거기엔 입침이 있어 사립과 비슷하며, 위는 향아리 같은데 그 꼭대기는 병의 입모양처럼 되어 있다. 승려들의 띠는 대체로 명주실로 짠 것이다. 혹 명주실로 짠 것 중에 붉은 끈을 맨 자는 옥권 또는 금권을 모자에 붙이기도 하였다. 또 아의를 입고, 털로 짠 병거지를 쓰고, 병거지 꼭대기에는 홍이를 나무끼며, 허리에는 청금대를 늘어뜨려 엉치 부분에 이르고, 쟁그랑 쟁그랑 쇠소리를 내며 걷는 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승려로서 군직에 있는 자였다. 승려의 염주는 나무로 만들어 옷칠을 한 것이 많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울무로 만든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⁹⁾

- 18) 李鈺, 『花石子文鈔』, 「蠅拂刻」 “一之則如醉, 再之則如病, 三之而始寂. 一之則如醉, 營營乎呼以翼. 翩翩乎旋以背, 三息而不再之, 則皇皇爾起. 望望爾去之, 隕闐而不敢止. 再之則如病, 肚宛宛然如有存. 股脈脈然如有動, 兢兢垂死貌, 刻幾半而始甦, 甦則圍圉然兢兢然, 如溺而未睡也. 如凍而將蟄也. 三之則始寂, 而亦無斷脰潰胃者, 人見之, 以爲將翮也. 掠而致之, 然後知其僵也.”
- 19) 李鈺, 『南程十篇』, 「緇髻」 “僧衣, 或布襖, 或青緜布襖, 或皂布直襖襖, 袖或廣或窄. 僧冠, 編竹短桶帽·布梁簷巾·蔽陽笠, 織竹皮簷笠. 又有笠簷, 似絲笠, 上似缸, 頂似餅口. 僧帶, 絲條, 或絲條其紅條者, 貼玉圈或金圈于帽. 又有鴉衣而笠氈, 腰係青錦帔, 當尻鳴鐵琅璫而趨者, 僧之職軍者也. 僧珠, 多木而髻, 貧

『重興遊記』의 「緇髡」절목은 북한산을 유람하며 만난 승려들에 관한 주제로 기록하였다. 12則 중에서 승려의 옷을 세밀하게 관찰한 후 기록한 7·8則이다. 옷부터 시작하여 갓·띠·염주·가사까지 색상, 소재, 모양 등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이옥은 새로운 대상과 사건, 일상에서 매우 치밀하고 세심하게 관찰, 분석하고 기록하는 성격의 사람이었다. 일상에서 세밀하게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이옥의 성격이 유기에서도 드러나는 덕에 이옥 유기만의 특징이 되었다. 유기이지만 기존의 유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상적인 관찰들이 주를 이루고, 관찰을 통한 꺾진한 묘사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부각시키면서 대상의 참 모습[眞]까지 포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옥은 사물의 각 차이를 발견하여 표현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객관적 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옥의 이러한 성향은 『南程十篇』보다 후에 지어진 『鳳城文餘』²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은 저자와 가까운 곳이다. 매양 2일과 7일이면 저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왁자지껄하였다. 저자 북쪽은 곧 내가 거처하는 남쪽 벽 아래인데, 벽은 본래 바라지도 없는 것을 내가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구멍을 뚫고 종이창을 만들어 놓았다. 종이창 밖, 채 열 걸음도 되지 않는 곳에 낮은 독이 있는데, 저자에 가기 위해 드나드는 곳이다. 종이 창에는 또한 구멍을 내어놓았는데, 겨우 한쪽 눈으로 내다볼 만하였다. 12월 27일 장날에 나는 무료하기 짝이 없어 종이 창을 통해서 밖을 엿보았다. 때는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고 구름그늘이 짙어 분변할 수 없었으나, 대략 정오를 넘기고 있었다.

소와 송아지를 몰고 오는 사람, 소 두 마리를 몰고 오는 사람, 닭을 안고 오는 사람, 문어를 들고 오는 사람, (中略) 손을 잡아끌어 장난치는 남녀,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 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 갔다가 또 다시 바삐 돌아오는 사람, 넓은 소매에 자락이 긴 옷을 입은 사람, 소매가 좁고 짧으며 자락이 없는 옷을 입은 사람, 방갓에 상복을 입은 사람, 僧袍와 僧笠을 한 중, 패랭이를 쓴 사람

者薏苡。”

20) 『鳳城文餘』는 1799년 10월부터 1800년 2월까지 삼가에서 지낸 뒤에 돌아오는 118일간 그곳에 인정세태와 풍물을 견문한 대로 기록한 잡록이다.

등이 보인다.

(中略) 아직 다 구경을 하지 못했는데, 나무 한 짐을 짊어진 사람이 종이 창 밖에서 담장을 정면으로 향한 채 쉬고 있었다. 나 또한 几案에 의지해 누웠다. 歲暮인 터라 저자가 더욱 봄비고 있었다.²¹⁾

위 작품은 이옥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록적 성향이 주변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옥에게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옥은 처음부터 자신은 방 안에서 겨우 한쪽 눈으로 내다볼 만큼 뚫린 구멍을 통해 저자의 풍경을 관찰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자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저자의 풍경 또한 새로울 것이 없는 풍경이지만, 이옥은 이러한 일상을 적극 활용하였다.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 수많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온갖 물물이 풍성한 저자의 모습이다. 세밀한 묘사를 통해 전체적인 인상을 끌어낸다. 저자가 시끝벽적 하고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옥이 창구멍을 통해 이 광경을 관찰하는 靜的인 행위에 비해 장날의 풍경은 매우 생동감이 넘치고 動的이다. 여기에 이옥의 평가와 의론은 어느 곳에도 드러내지 않고 다만 관찰한 광경만 묘사하였다. 자기가 위치한 장소에서 주변사물들을 활듯이 들여다보고 묘사하는 데에 중심 가치는 전혀 개입할 틈이 없다. 이처럼 이옥은 『南程十篇』에서 드러났던 관찰·기록적 성향을 추구하고 즐겼으며, 『鳳城文餘』를 쓸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성향이 극대화 된 것이다. 일상을 포착하여 묘사를 통해 전달하는 재능은 이옥의 유기 작품을 더욱 독창적이

21) 李鈺, 『鳳城文餘』, 「市記」 “余所寓店也, 近市, 每二日七日, 市聲囂囂然聞. 市之北, 卽余寓之南壁下也. 壁舊無牖, 余爲納陽, 穴而致紙核, 核之外不十步, 有一短堤者, 市之所由出入也. 核又有穴, 僅容一目. 十二月之二十七日, 余無聊甚, 從核穴窺之, 時雪意猶濃, 雲陰不可辨, 而大略已過午矣. 有驅牛若犢而來者, 有驅兩牛來者, 有抱鷄來者, 有拖八梢魚來者, (中略) 有男女挽手相戲者, 有去而復來者, 有來而復去, 去而又復來忙忙者. 有衣廣袖長裾者, 有衣上袍下裳者, 有衣窄袖長裾者, 有衣袖窄而短無裾者, 有羅濟笠而持凶服者, 有僧僧袍而僧笠者, 有戴平涼笠者. (中略) 觀未止, 有負一擔柴者, 憩于核外正牆面, 余亦隱几而臥. 歲暮故市益繁也.”

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이옥은 자신을 잊고 자신을 둘러싼 사건이나 풍경, 눈에 비친 것을 남김없이 기록하였다. 지극히 정밀하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묘사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이미지까지 그려내었다. 이옥이 이렇게 현재에 몰입한 것은 이옥이 자신의 불우한 현재를 잊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2. 日常言語의 使用

이옥은 지방의 특색 중에서도 특히 사투리에 대해 대단한 호기심과 흥미를 보였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앞에서 밝혔듯, 이옥은 방언을 듣고 어느 지방의 방언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가치를 논하기에는 옳지 않다. 다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옥은 방언은 물론 구어나 비속어도 문장에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는데, 일상의 언어를 유기에 사용하여 현실감 있는 일상을 그리고자 하였다. 우선은 방언을 기록한 유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방의 말을 들으매, 첫날엔 뭐가 뭔지 분변할 수 없다가 둘째 날엔 반 정도 알아듣고, 셋째 날엔 듣는 대로 통한다. 청하는 것을 都兀呀라고 하니, 서로 돕는다는 뜻이고, 응하는 것을 于噎呀라고 하니, 윗사람이 대답하는 것인데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쓴다. 어머니를 於邁, 할아버지를 轄輩, 여자를 嘉散, 지팡이를 斫枝, 등구미를 舉致, 새끼줄을 朔落緊, 벼를 羅樂, 말을 沒, 닭의 새끼를 貧兒利, 산을 昧, 돌을 突其, 외양간을 求義, 부엌을 精子라고 한다.²²⁾

22) 李鈺, 『南程十篇』, 「方言」 “聞於鄉之音, 一日莫或辨, 二日得其半, 三日隨而貫. 請曰都兀呀, 相助之義也, 應曰于噎呀, 尊之所以唯, 卑亦施於尊. 母曰於邁, 祖曰轄輩, 女子曰嘉散, 筇曰斫枝, 圖曰舉致, 絢曰朔落緊, 稻曰羅樂, 馬曰沒, 鷄雛曰貧兒利, 山曰昧, 石曰突其, 廐曰求義, 廚曰精子.”

『南程十篇』의 「方言」으로 영남 지방에서 생소하게 접한 방언에 대해 기록한 글이다. 여기서는 영남 서벌라국[신라] 지방의 말을 듣고 그 지방에서 새롭게 접한 방언을 기록하고 있다. 첫날엔 뭐가 뭔지 분변할 수 없을 정도로 못 알아들었으나, 둘째 날, 셋째 날이 되었을 때에는 이옥의 세심한 관찰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 뜻은 통하게 되었다. 이옥의 기록적 성향을 따르자면 이러한 방언은 일상의 기이한 일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영남 지방의 방언을 알아듣게 되었을 때 바로 자신에게 생소한 방언의 예들을 모두 기록하였다. 그들의 일상 언어를 기록함으로써 그 일상을 함께 그리고자 하는 의도이다.

한편, 같은 제목으로 『鳳城文餘』에도 방언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옥이 일상 언어와 방언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구어와 비속어를 사용한 글을 살펴보도록 하자.

楚에서는 초나라 말을 하고, 齊에서는 제나라 말을 하고, 鄒魯에서는 추로의 말을 하고, 秦에서는 周나라 말을 하고, 吳에서는 오나라 말을 하는데, 혹은 수다스럽고, 혹은 짹짹거리고, 혹은 머뭇머뭇하고, 혹은 깔깔거리다.²³⁾

전통적인 문장양식에서는 구어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전의 말을 인용하는 등 전아한 문어체 사용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이옥은 전통적인 문장양식보다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자신만의 문장양식을 사용하였다. 「方言」의 한 부분인 이 글은 이옥의 세계관에 있어 특히 혁신적인 상대주의적 인식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러나 엄숙하다거나 진지한 표현은 없다. ‘수다스럽고, 짹짹거리고, 머뭇머뭇하고, 깔깔거리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23) 李鈺, 『南程十篇』, 「方言」 “楚言楚言, 齊言齊言, 鄒魯言鄒魯言, 秦言周言, 吳言吳言. 或刺刺, 或啜啜, 或恂恂如, 或吃吃.”

3. 場面の 極大化

李鈺의 遊記 작품 속에는 산수 경치를 다루기보다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이는 유기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유람의 기록이 장면제시를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화나 문답법의 사용은 곧 일상의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생동감과 사실성을 얻는 좋은 방법이 된다. 더하여 글 속의 상황을 보다 쉽게 전달해 줌으로써 더욱 유기문의 청신 발랄한 문풍을 잘 살려주고 있다. 더욱 유기에 등장하는 대화는 단순히 생동감·현장감을 높여주는 기능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화의 행간에는 재치 있고 기발한 작가의 사유가 감추어져 있다. 대화체는 대화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목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대화 속에 담겨진 화자의 사유를 은연중에 강조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대화체는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한편,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심리도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전체적으로 청신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더욱의 유기문은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짧은 글에서 재치 있는 답변을 통해 대화체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李子が 金子와 더불어 술을 마시다 취하게 되었는데 金子가 李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그대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가? 가을 기운이 사람의 폐부에 스며들고 城市에서의 나날은 우울하여 스스로 즐겁지가 않다. 나는 北漢山城을 보러 가고자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는가?”

또 말하였다.

“내 아우 鴻이 실제 이번 산행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대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李子が 말하였다.

“그러세. 날짜를 정하게.”

“27일이 깃하다고 본다.”

“더디다. 잊그제 얘기했다는 날이 있지 않느냐.”

金子가 말하였다.

“좋다.”

다른 날 이자가 成均館 동구에서 閔子를 만나, 金子가 말을 하고 또 그 연유를 고했더니 閔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네들만이 오로지 산에 간단 말인가? 생각하면 이 늙은 사람이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자네들이 가는데 어찌 이 늙은 사람의 앞장서는 일이 빠져서 되겠는가?”

李子가 미안해하며 말하였다.

“다행입니다. 원컨대 선생께서는 서두르시어 저희들이 기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²⁴⁾

위 글은 『重興遊記』 「約束」에 나오는 부분이다. 이옥과 김려, 민사옹이 산행 날짜를 잡게 되는 과정을 대화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옥의 재치 있는 답변 “더디다. 잊그제 얘기했다는 날이 있지 않느냐”, “선생께서는 서두르시어 저희들이 기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성시에서의 울울한 나날들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알 수 있다. 짧은 대화를 통해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가 전해진다.

다음으로 상황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글들을 살펴보자. 이러한 성향은 『南程十篇』의 「路問」이나 「寺觀」, 「嶺惑」 등의 제목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병인(9월 18일)에 銅川까지 갔더니, 기침하며 말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 지방 사투리를 섞어 말하고 있었다.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니, 수염과 눈썹이 희고,

24) 李鈺, 『重興遊記』, 「約束」 “李子與金子, 飲酒酣, 金子顧李子曰, 子欲出乎? 秋氣沁人肺胃, 城市覺鬱鬱不自聊. 吾欲往觀乎北漢城, 子何莫出乎? 又曰, 吾弟鴻, 窠主是行, 要與子偕. 李子曰, 諾. 請其期. 曰, 二十七吉. 曰, 遲遲. 不有昨乎? 金子曰, 諾. 他日, 李子選閔子於泮道, 金子言且告以緣, 閔子曰, 然. 二子專之耶? 顧老夫不當先耶? 二三子之行, 而豈可少老夫前也! 李子謝曰, 幸之焉. 願先生早之, 毋使之懸也.”

이마에는 주름살이 잡혀 있었다. 나이를 말하게 하였더니,

“태어난 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스물아홉 번의 윤달을 보았소이다.”

“노인은 어디 사는 분이요?”

“집이라면 鹿仁에 있소이다.”

(中略)

“장차 어디로 가려요?”

“올해 영남이 풍년이고 또 솜옷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다가, 날씨도 좀 따뜻한 곳이니, 구렁에 쓰러져 죽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하여 살기를 도모한답니다.”

“내가 제대로 만났군요. 恩津에서 호서와 호남의 경계로 해서 영남의 三嘉 읍내까지 가려하는데, 장차 어느 길을 택해야 하며 몇 갈래의 길이 있으며, 어디로 가야 편하고 빠르겠소? 나는 行役이 익숙하지 못하는데 노인은 익숙하니 나를 도와주소.”

노인은 손을 꼽아가며 대답하였다.

(中略)

“나그네들이 많이 다니나요?”

“호남 사람은 영남의 솜옷을 입고, 영남 사람은 호남의 소금을 먹고 사는데, 모두 이 길을 통해 다닙니다. 말방울이 서로 화답하니 길손들은 서로 불을 빌려줄 정도이지요.”

종자에게 명하여 그에게 술을 대접하였다.²⁵⁾

『南程十篇』의 「路問」은 삼가로 가는 도중,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삼가로 가는 길을 묻는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한 글이다. 이 글은 길을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問路[길을 묻다]」로 하는 것이 더 옳을 터인데, 이옥은 「路問[길에서 묻다]」으로 제목을 정하였다. 이옥은 길을 물어 알게 된 사실을 적는 것보다, 길에서 묻는 그 상황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저 멀리서 기침하며 여러 사투리를 섞어 말하는 그 노인을 만나는 과정부터 마지막 술을 대접하도록 종자에게 명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시종일관 대화체를 사용하여 그 상황을 보여주

25) 李鈺, 『南程十篇』, 「路問」

고 있다. 단순한 경물 묘사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더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옥은 심성수양이나 호연지기의 함양을 기대하며 유람하기보다는 유람 자체를 즐겼으며, 유람을 통해 느꼈던 즐거운 기억 그 자체가 자유로운 글쓰기의 소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옥은 유람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기존 유기문의 상투화된 구성에서 벗어난 이옥만의 자유로운 체제와 다양한 소재의 유기문을 남길 수 있었다.

또한 이옥은 문답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대개 가상의 주객을 등장시켜 문답을 나누는 형식이다.²⁶⁾

개울을 건너 종이 만드는 곳으로 갔다.

“장정 여덟이 돌에 숨 같은 것을 빨고 있는 것은 무엇함인가?” “닥나무를 처음 삶아내는 것이다.”

“노인 몇이 일 없는 듯 짝지어 앉아서 손으로 갈래갈래 찢는 것은 무엇함인가?” “닥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中略)

“칼과 송곳을 잡고 이 잡듯 종이를 펴보는 것은 무엇함인가?” “그 흠을 손질하는 것이다.”

“거미줄처럼 줄을 맨 것은 무엇함인가?” “종이가 완성되면 말리는 것이다.”

“노인과 아이가 방아를 밟듯 감히 스스로 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찢는 것인가?” “아니다. 놀러 다지는 것이다.”

중을 돌아보며 말하는데, 일러주던 자가 말했다.

“종이는 보배이다. 감히 쉽게 다룰 수 있겠는가?”²⁷⁾

26) 김성진은 소품체 산문의 문체에 드러나는 특질의 하나로 대화체가 많다는 것을 들고, 이 대화체의 문장은 대개 作中話者가 主客이 되어 問答을 나누는 형식을 취하며, 작중 화자는 戲畫化된 인물이거나 아니면 擬人化된 동식물, 또는 사물이라고 하였다. (김성진, 앞의 논문, p.126.)

27) 李鈺, 『南程十篇』, 「寺觀」 “渡溪之, 紙之所. 丁夫八, 泔澗于石硯者, 何? 始漚楮也. 老者數人, 隅坐若無事, 手枝條者, 何? 取其膚也. (中略) 持刃錐繙紙若審蝨者, 何? 治其疵也. 張索繩蛛絲者, 何? 紙成而晾也. 老弱踏確不敢自休者, 何春? 曰硯也. 顧語僧, 告者曰, 紙之寶乎, 其敢易諸?”

송광사에서 종이 만드는 광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질문자는 보이는 대로-숨 같은 것, 일 없는 듯, 이 잡듯, 거미줄처럼, 방아를 밟듯 등 묘사하여 물어봄으로써 독자가 그 광경을 그려볼 수 있고, 그러한 묘사를 통하여 닥나무에서부터 종이가 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대화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종이 만드는 과정을 묘사할 수 있지만, 대화체를 통하여 더욱 독자로 하여금 함께 그 광경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 과정을 다 아는 듯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함께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독자들에게 흥미와 현장감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묘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앞에서 인용한 『南程十篇』 「路間」에서는 대화체를 통해 지명의 명칭과 각 지명 사이의 거리에 대해 논하고, 『南程十篇』 「烟經」에서도 사미승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만 제시함으로써 이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화체는 『南程十篇』의 거의 모든 절목에 사용되었다.

이옥은 자신이 보고 들은 상황을 자세하게, 加減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대화체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이끌어냈다. 이옥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사유, 그 장면에 현장감을 더하는 것은 물론 이요, 생동감도 전해지며, 독자의 흥미를 끌어냄과 동시에, 간결한 필치로 속도감을 더해주고 있다. 곧 장면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당시 古文派들이 法古를 중시하고, 관념적 道를 논할 뿐 생명력이 없었던 載道之文에 비해, 이옥의 글에 생명력을 더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옥 유기의 특징과 미적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옥이 살았던 시기는 이전의 중심적인 가치인 성리학과 새로운 사상의 만나 동요되는 시기였으며, 문학적으로는 명말청초의 소품문이 크게 유행하여 정조가 이를 제지하기위해 순정한 문체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던 시기였다. 이옥의 유기는 사상과 문학의 혼란기에 대부분 지어진 작품들로서 정조로부터 지적을 받고 엄격한 제재를 받은 이옥의 문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옥의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살펴볼 수 있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옥의 유기는 전체성에 대한 거부, 일상의 포착이라는 미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탈중심적이고 일상에 몰두하는 이옥 자신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전체성에 대한 거부는 3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첫째로는 기존의 유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탈중심적 소재를 다룬 점, 둘째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한 점, 마지막으로 일반적 시선과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고 분해하여 이옥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점이다.

당시의 중심적 가치관인 성리학과 古文에 대한 저항과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은 이전의 유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재의 유기를 창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옥은 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각각의 차이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가치관과 관점으로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여, 전체적 이미지를 이옥의 기준으로 분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함으로써 재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옥은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현재 보이는 것, 또는 상황을 포착하고 기록하는데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옥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객관적 시각으로 보았으며, 상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포착하여 그것들을 하나하나 글로 옮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일상의 언어를 유기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대화체를 사용하여 장면에 생동감과 사실성을 더하면서 장면을 극대화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이 이옥 유기의 미적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옥의 유기

의 의의와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옥의 유기는 일반적 유기처럼 산수의 풍광을 감상하기보다는 현재 이옥을 사로잡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에 몰두, 묘사하였다. 그렇기에 어느 곳을 가던지 이옥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무엇을 그리건 그것 자체가 놀이가 되었다. 이옥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나름의 위안을 삼았기 때문에 산수는 이옥에게 다른 의미의 안식처요, 구도처가 되었으며, 산수를 그리는 행위는 자기 위안이며 오락적인 놀이가 되었다. 이처럼 체재와 규범에서 벗어나 개성적이고 탈중심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유기를 지었다는 점에서 이옥은 조선 후기 문단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더 나아가 조선후기 사회에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이옥과 같은 시기의 소품체 유기를 남긴 조선 후기의 작가의 작품과, 명말의 소품체 유기 작품의 비교를 통해 이옥만의 개성을 더욱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이옥의 유기 뿐 아니라 이옥 산문에 대한 특징을 비교연구하기에 필요한 작업이며, 이러한 본격적인 비교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탐구해야할 과제로 남겨둔다.

<參考 文獻>

- 李鈺著,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역주 이옥전집 1-3』, 소명출판사, 2001.
 李鈺著, 심경호譯, 『선생, 세상의 그물을 조심하십시오』, 태학사, 2001.
- 강명관, 「문체와 국가장치-정조의 문체반정을 둘러싼 사건들」,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제』, 태학사, 2003.
- 김균태, 「이옥의 문학기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이옥의 봉성문여 연구」, 『역사민족학』 제8권, 1999.
- 김영진, 「이옥 연구1-가계와 교유, 명·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1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 , 「조선후기 명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성진, 「조선후기 소품체 산문 연구」,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혜진, 「원굉도의 유기문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가원, 『燕巖 文無子 小說精選』, 박영사, 1974.
- 이혜순외 공저,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 정 민,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경향」,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제』, 태학사, 2003.

Abstract

*Aesthetic feature of playing record by Lee Ok(李鈺) / Hwang Ah Young**

This thesis aimed at examining the feature centering around the playing record of Lee Ok(李鈺)(1761~1812) and searching for the aesthetic feature of playing record by Lee Ok.

Those days that Lee Ok lived were from the latter period of the 18th century to the early stage of the 19th century. Then, it was the period that great change progressed over politics, society, economy, and culture in Chosun(朝鮮).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literature, it was more confused period due to Moonche-banjung(文體反正) that Chungjo(正祖) promoted. Lee, Ok persisted in the prose of short piece style regardless of the strict stylistic sanction of Chungjo(正祖) as a figure who became an issue due to Moonchebanjung(文體反正).

Playing record by Lee Ok which has these features shows the aesthetic feature to be the refusal for wholeness and the capture of everyday life. This is caused by own character of Lee Ok to get out of center and to be absorbed in daily life. Refusal for wholeness is revealed with 3 kinds of forms. Then, first is that it handled the material to get out of center which was not handled in existing playing record. Second is that it threw away existing fixed idea and recognized diversity. Last is that it reconstituted from Lee Ok's viewpoint by seeing the world from the angle which is different from general viewpoint and disassembling.

And Lee Ok had excellent talent for catching and recording daily life on the spot of concrete life. Lee Ok caught situation exactly with objective sight

* The Ph.D course in Sungshin Women's Univ. / ah-youngwang@hanmail.net

from the viewpoint of observer and laid emphasis on translating it into writing one by one and used the language of daily life. And, he maximized scene, adding vividness and reality to scene, by using conversational style.

In this thesis, this researcher tried to discover the meaning and value of playing record by Lee Ok by examining the aesthetic feature of playing record by Lee Ok. Lee Ok prepared the great turning point in the literary world of latter period of Chosun(朝鮮) in that he made the playing record to advocate the individualistic value to get out of center by getting out of style and norm. Furthermore, it is deemed that it became the starting point to enable the society of latter period of Chosun(朝鮮) to recognize diversity. This is the meaning and value of playing record by Lee Ok.

【Key words】 Lee Ok(李鈺), Playing record, refusal for wholeness, off center, diversity, capture of everyday life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